

몸소 트랙또르도 돌아보시며

2023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한여름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금성트랙또르공장을 찾으시었을 때의 일이다.

오랜 시간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제일 관심하신것은 트랙또르의 성능과 질에 대한 문제였다.

생산현장을 돌아보시고 밖으로 나오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준비하게 늘어서있는 트랙또르들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공장로동계급의 땀과 노력이 진하게 스며여있기에 더욱 소중하신듯 한동안 장쾌한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문득 공장에서 생산한 트랙또르를 한번 운전해보자고 한다고 하시였다.

2017년에 공장을 찾으시었을 때에도 트랙또르를 돌아보시며 그 성능과 기술적특성을 료해하시고 가르치심을 주신 우리의 총비서동지이시였다.

그런데 또다시 공장에서 생산한 트랙또르를 운전해보자고 하시니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을 위해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심혈과 로고가 마쳐와 일군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얼마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돌아가시는 트랙또르의 발동소리가 울려퍼지였다.

이윽하여 트랙또르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변속기와 조향장치가 지난 시기보다 많이 원활해지고 편안해졌다고 치하해주기도 하시고 제동발디디개의 높이와 가속답판의 위치에 대하여, 운전수좌석에 설치한 용수의 세기문제에 이르기까지 트랙또르의 우결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나라의 기계공업발전과 농촌기술혁명수행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리르며 공장일군들은 전세대 천리마로동계급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당중앙이 제시한 투쟁목표를 기어이 실현해나갈 맹세를 굳게 다지였다.